

# K-Book Talk Series

<b>세 번째 대담</b>	<b>작품명</b>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b>작가</b> 서미애	<b>대담자</b> 필리프 망슈	<b>일시</b> 9월 30일 (목) 19:00(한국), 12:00(프랑스)
--------------------	---------------------------------	------------------	----------------------	--

## A Literary Gathering

### K-Book Talk Series: 한국문학을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문학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K-Book Talk Series는 한국 작가와 세계 독자가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작가 대담 시리즈입니다. 한국 작가 9명이 전 세계 7개 국가(미국, 대만, 중국, 프랑스, 베트남, 일본, 캐나다)에서의 작품 출간을 기념하여 온라인으로 독자와 만납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작가들의 작품은 이미 영화, 드라마, 그래픽 노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하여 많은 관객의 공감을 받았습니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한국의 작가들이 해외의 작가, 토크쇼 진행자, 기자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서미애

####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일시**  
9월 30일 (목)  
19:00(한국)  
12:00(프랑스)

**장소**  
한국문학번역원 유튜브 채널  
\*행사 2시간 전에 유튜브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사전등록**  
<https://bit.ly/3yUTTBI>

	시간	구분	내용
<b>대담 식순</b>	12:00-13:30 (Paris Time)	1부	대담 1부 서미애 × 필리프 망슈   작가 서미애
		브릿지 영상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영상 클립
		2부	대담 2부 서미애 × 필리프 망슈   서미애와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 작가소개

#### 서미애

1965년생. 소설가, 극작가. 1994년 『남편을 죽이는 서른 가지 방법』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본격적으로 작가의 삶을 살았다. 초기에는 주로 단편 추리소설과 드라마,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업에 집중했다. 2006년 추리소설 단편집 출판 이후 본격적으로 장편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추리와 스릴러 분야에서 다양한 글을 쓰며 ‘추리소설의 여왕’으로 불리며 확고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공포로 아동학대, 학교폭력, 데이트살인(데이트폭력)을 꼽는다. 대표작으로 『남편을 죽이는 서른 가지 방법』, 『반가운 살인자』, 『인형의 정원』, 『잘 자요 엄마』, 『아린의 시선』,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등이 있다.

시나리오 작업을 한 장편 애니메이션 <마리아이야기>가 제26회 프랑스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상을 받았고, 한국추리작가협회 추리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 작품소개

####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이 책은 2010년 출간되어 15개 나라와 판권 계약을 맺은 『잘 자요, 엄마』의 후속작이다. 『잘 자요, 엄마』가 악의 근원을 파고드는 심리 스릴러의 모범을 보였다면, 이 책에서는 17살이 된 하영을 통해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기 내면의 욕구만 들여다보던 어린 하영은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성장한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사춘기에 갑작스러운 이사로 예민해진 데다 전학 간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하영은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사회를 경험하면서 더 크고 복잡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하영은 자기 안에 눌러두었던 폭력성과 어두운 본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미스터리 스릴러와 학교폭력, 가정 스릴러를 동시에 담고 있는 이 책에서 독자들은 사춘기의 어지럽고 복잡하며 심리상태와 사이코패스의 기묘하기까지 한 서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수많은 범죄자의 마음을 분석했지만, 가장 들여다보고 싶은 인물이 이 소설에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어

프랑스어

### 대담자

#### 필리프 망슈

1998년부터 벨기에 문화를 취재한 필리프 망슈(57세)는 25년간 벨기에 일간지인 르수아르(Le Soir) 문화부에서 음악, 영화, 장르 문학을 다루었다. 2004년 마누차오의 인터뷰를 담은 책(르세르팡 아 플뤼 Editions Le Serpent à plumes 출판사)의 저자이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뉴스 전문채널 LN24의 문화부 국장이었다. 2017년부터 리옹추리문학축제의 모데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카피라이터와 기자로서 현재는 주간지 르비프(Le Vif)와 문화부 섹션인 르포퀴스/비프(le Focus/Vif)에서 장르문학과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30년 넘게 벨기에에서 살고 있다.



### K-Book Talk Series 대담일정

\* 모든 대담은 한국어와 현지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날짜	시간	국가	주제
7월	30일 (금), 21:30 (KST)	대만	소재원 <터널>
9월	10일 (금), 15:00 (KST)	중국	손원평 <아몬드>
	30일 (목), 19:00 (KST)	프랑스	서미애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10월	29일 (금), 09:00 (KST)	미국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3일 (수), 09:00 (KST)	캐나다	김금숙 <기다림>
11월	3일 (수), 18:00 (KST)	베트남	정세랑 <피프티피플>
	5일 (금), 08:00 (KST)	미국	배명훈 <타워> / 정소연 <개화>
	5일 (금), 19:00 (KST)	일본	정세랑 <목소리를 드릴게요>

\* 대담 일정은 블로그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https://publishersroundtable.blogspot.com/2021/09/every-secret-has-name-seo-mi-ae-fr.html>

